한은, 사상 첫 무제한 유동성 공급 나선다

‘한국판 양적완화’…3개월간 매주 RP 매입
“금융시장 안정·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

한국은행이 3개월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던 전례 없는 조치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펼치는 양적완화(QE)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4월부터 6월까지 일정 금리수준 아래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91일 만기의 RP를 일정금리 수준에서 매입한다.

매입 한도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춰 금융기관의 신청액을 전액 공급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RP 거래 대상이 되는 적격증권만 제시하면 매입 요청한 금액을 모두 사들이겠단 것이다.

입찰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해 입찰 때마다 공고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액공급 방식의 (한도 제약 없는) 유동성 지원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실시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RP 입찰 참여 금융기관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하고 RP 매매 대상증권도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발행 채권 8종을 추가했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한은이 공개시장운영으로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통화)이 풀리는 효과가 난다.

한은은 7월 이후에도 시장 상황과 입찰 결과 등을 고려해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했고, 일부 시장에선 자금조달이 원활히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이번 조치가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사실상 같지 않으냐는 질의에 “시장 수요에 맞춰 수요를 전액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의 양적완화가 아니냐고 한다면 꼭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린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형 양적완화로 봐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다만 한은은 이번 조치로 실제 어느 규모의 유동성이 추가 공급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부총재는 이번을 포함해 최근에 RP 대상증권에 추가된 대상증권의 발행규모를 약 70조로 추정하고 “신청액을 전액 공급한다는 방침만 결정됐을 뿐 실제 입찰과정에서 요청액이 얼마 들어올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比 3.6%↑

국토교통부는 작년 건설공사 계약액이 226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58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9.2% 늘었다.

민간 부분 계약액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168조1천억원이다.

공종별로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계약액은 전년보다 9.5% 증가한 64조1천억원이다. 국토부는 작년 철도와 지하철 공사가 늘어나 토목 계약액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건축 계약액은 162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92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0% 늘었고 51-100위 기업은 14조2천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101-300위 기업은 17조7천억원으로 3.3% 줄었고 301-1천위 기업은 19조4천억원으로 10.8% 증가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1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10조원으로 4.8% 줄었다.

작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66조원이다.

공공공사는 18조8천억원으로 34.8% 늘었고 민간 부분은 47조3천억원으로 6.8% 증가했다.

토목 계약액은 16조8천억원으로 22.6%, 건축은 49조2천억원으로 10.7% 늘었다.

/연합뉴스

코스피 다시 1,700 아래로… 코스피가 26일 한국은행의 ‘양적완화’ 선언과 미국 상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안 통과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52포인트(1.09%) 내린 1,686.24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코로나 대출’ 앞세운 불법광고 기승

올해 상담 2만9천여건 접수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26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가 접수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2만9천2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 자금으로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있다.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정부 기관의 상징을 비슷하게 꾸며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현혹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 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문구를 넣은 광고를 대량 노출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 상품으로 가장한 문자나 전단을 뿌려 불법 대출을 시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비슷한 상호로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면 불법 업체의 대출 사기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청년 전세자금 대출 34세 이하 확대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금리 인하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선 금리가 인하된다. 도심의 낡은 고시원이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에 대한 주택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 상한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신설된 구간인 25-34세 청년에겐 대출한도 5천만원으로 1.8-2.4%의 금리에 제공된다.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7천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25세 미만이면서 단독세대주인 청년에게는 대출한도 3천500만원에 1.2-1.8%의 저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다.

원래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1.8-2.7%였는데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선 금리가 인하된 것이다.

25세 미만이지만 단독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25-34세와 같은 조건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가구당 연 24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 1만1천가구는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단가를 기존 9천5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해 입지가 좋은 역세권 건물도 공공임대로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투데이 경제

LX 곡성구례지사, 코로나19 방역활동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곡성구례지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사 사옥은 물론 업무용 차량 및 직원 차량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다.

LX 곡성구례지사는 업무특성상 대면업무가 많은 점을 감안해 사옥 내 체온계를 비치, 직원 및 고객들의 체온 이상 상태를 확인하고 더불어 차량마다 살균소독제를 비치했다. 직원 재택근무와 시차출 퇴근제를 적극 활용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홍영아 LX 곡성구례지사장은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 직원들의 건강은 물론 지역주민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해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후성 기자

에어서울, 베트남 교민 위해 전세기 투입

에어서울은 베트남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을 국내로 수송하기 위해 다음달 7일 다낭으로 전세항공편을 띄운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세항공편은 베트남 중부 한인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서 교민수송을 위해 전세항공편을 띄운 것은 에어서울이 처음이다.

에어서울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과 베트남 간의 모든 항공편이 운항 중단되면서 다낭뿐만 아니라 호이안, 꽝남, 후에 등 베트남 중부지역에 발이 묶인 교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운항을 결정했다.

에어서울의 다낭-인천전세항공편은 다음달 7일 오전 11시에 다낭을 출발해, 오후 6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며, 교민 190여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임후성 기자

호반그룹, 협력사 경영안정 지원금 전달

호반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협력사들을 지원한다.

26일 호남그룹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호반파크 2관에서 협력사 대표인 현호건설 심용길 대표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금 20억원을 전달했다.

지원금 대상은 호반건설·호반산업 협력사 200여곳이다. 전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큰 대구·경북의 협력사를 우선 선정해 각 2천만원을, 공사 진행 현장의 협력사들에 각 1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내달 초에 지급된다.

/박은성 기자

급매전문

[감정가이하 빌딩]
○금남로 대로변 전철역입구 대형빌딩==(감정가이하) 급처분
○광주역앞 (반값빌딩) 급매24억(보1억월1,800만원)
○문화전당역 로타리인접 대로변 대지340㎡ 주상복합 최적 [반값매물] 급처분 1,750만원
○광주역 대로변 대지400㎡ 건평1,800㎡ 급매19억8,000
○전대의대옆 다세대 대지412㎡ 건평641㎡ 급매16억(보6,700 월859만원) 365일 공실 없음
○대인동 썬트러빌아파트2,300세대입구 상업지 대지380㎡ 건평800㎡ [반값매물] 급매1,500만원 급처분==병의원 최적
○유동로타리인접대로변 [반값매물]대지651㎡ 4층건물 급매13억3,000
○나주 터미널옆 원룸 매가6억5,000(보2,000 월430만원포함)

[다용도 매물]
○영광군 법성면 임암리 도로접 와탄천옆 경사도완만함 임야40,000㎡ 3.3㎡당 18,000원 급처분(굴비생산지법성포인접)
○강신군 도암면 국도 삼거리코너 계획관리대지4,021㎡ 건평1,130㎡ 공연장, 음식점, 민박 [반값처분]총가5억 교환도 가능
○강진군 신전면 목장용지 32,000㎡ 예쁜 주택, 축사1동 있음 급매 5억 전원 주택 단지 최적 교환도 가능

***상가빌딩, 모텔, 가든, 나대지
지방, 섬땅등 투자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현대공인중개사
치평동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370-1900 010-2006-0115
〈 광주 인근 지역 매매 물건 구함 〉
(장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곡성)
물건의 종류 : 건물 / 대지 / 임야 / 전답 / 기타
〈 광주지역 매매 임대물건 구함 〉
물건의 종류 : 건물 / 토지
〈 급매물 단 시일 내 책임중개 〉
대표 공인중개사 김학제